15일 베트남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에서 회의에 앞서 3국 대표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연합뉴스

■ 한·미·일 3국 6자 수석대표 하노이 회동

"'北 비핵화' 의제 바뀌지 않았다"

차기 회담 전략 논의… 6자회담 재개 때 北 조속한 조치 요구키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차기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수석대표들은 또 12월15일 이전에 차기 6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확정 작업은 회담 개최국인 중국에 맡기기로 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3자회동이 끝난 뒤 "차기 6자회담에서 달성할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조치를 달성해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 어떤 접근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빠른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에 요구할 조치의 세부 내용과 관련국들이 그에 상응해 취할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선행 조치와 관련, 영변 5MW 원자로 등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중 일부의 동결 또는 폐기, 핵무기 및 관련 시설 보유 현황 신고 등이 가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 비핵화라는 6자회담 의제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자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하노이 시내 대우호텔에서 천 본부장과 조찬을 겸한 한미 양자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 의제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고 비핵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회담 의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난해 11월 중단됐다가 다시 열리는 첫 회담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좋은 협의를 가졌다"며 "우리는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와 관련해) 진전을 봐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맥빠진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첫 감사… 의원들 준비·경험 부족 역력

제5대 광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준비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상임위별로 기획관리실·감사실·복지여성국·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으나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아 성의없는 질문과 지적이 이어지는 등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

행자위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지각 참여로 감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지키지 못했고 이 때까지 단 한명의 의원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소홀했다.

보도자료는 차치하고라도 질의서를 준비한 의원이 서채원, 유재신, 이명자, 이상동 의원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의원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보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즉석에서 질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성의없는 행정감사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행정감사 태도는 철저한 자료분석과 보강 자료 요구 등으로 준비된 국정감사를 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지방의회의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만 보면 충분한 준비 속에 경쟁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배포하고 집행부를 강력히 몰아붙였던 지난 제4대 광주시의회와 비교가 된다"며 "아무리 첫 감사라고 하지만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재신 의원은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중 등록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일부 시설에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동 의원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체육시설 4곳이 해마다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潘 차기총장 '성대한' 환송

공항 환송 인파 몰려
유엔 24시간 전담 경호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출국하는 순간에도 '성대하고 화려한' 환송식을 치렀다.

사무총장직 인수인계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반 사무총장 내정자는 공항에서 이규형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간부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 이 차관 외에 윤병세 차관보와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추규호 대변인, 이혁 아태국장 등 외교부 주요 간부들은 부인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특히 차기 외교장관으로 내정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반 내정자는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다"고 운을 뗀 뒤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격려와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며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라는 말처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합할 것"이라고 출국 소감을 밝혔다.

반 내정자는 3층 외빈실에서 비행기로 직접 탑승할 수 있는 더블 게이트를 통해 출국했고 게이트 앞에는 16명으로 구성된 국군 전통 의장대가 도열해 반 내정자를 환송했다.

15일 오전 유엔사무총장 업무 인수차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는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출국 직전 출영객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 내정자는 뉴욕에 도착하는 15일(현지시간)부터 유엔 경호국의 24시간 철통 경호 속에 사무총장 취임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인다. 반 차기 사무총장 전담 경호팀은 최대 15명의 전문 경호요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서너명은 반 차기 사무총장을 24시간 근접경호하게 된다.

유엔 경호국은 사무총장 경호를 위해 사무총장실 안에 별동대 성격의 전담경호팀을 운영하지만 반 차기 사무총장의 경우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 사무총장 경호팀과는 별도의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다.

반 차기 사무총장은 내년 1월 사무총장에 정식 취임할 때까지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 유엔 건물에 마련된 별도의 집무실에서 언론회견 없이 인수팀과 함께 유엔 업무를 파악하는 동시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구상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광주연극 영광 찾으려면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무대 뒤 '분장실'은 공연을 앞둔 설레임이 있고, 분장을 지우며 느끼는 아쉬움이 있는 공간이다.

얼마 전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예선이 열린 궁동예술극장에서 접한 분장실 풍경은 인상적이었다. 작품 '열일곱살'을 공연한 후 여고생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무사히 공연을 끝냈다는 안도감, 좀 더 잘하고 싶은 아쉬움의 눈물이었다.

당시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여고생들의 말에 광주 연극판이 꿈많은 이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자문해 보았다. 답은 '아니오'.

광주 연극판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전국연극제 수상 등으로 한때 '전국 연극의 모태'라는 칭송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아 옛날이여'다.

지난 13일 침체에 빠진 광주 연극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동신여고가 대상 등 5관왕을 차지 한 것이다. '형 만한 아우 없다'는데 '나중 난 뿔이 우뚝한 셈'이랄까.

현재 광주연극협회 산하 극단은 10개. 매년 25~30편이 무대에 오르지만 '볼 만한' 작품을 만나기는 어렵다. 연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배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에서 '연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배우는 드물다.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다 보니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연극' 이외의 일이 먼저다. 배우 재교육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실력 있는 배우들은 광주를 떠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극단들은 몇 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형식적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곤 한다. '광주연극제'에서는 한 배우가 두 작품에 겹치기 출연하고, 한 출품작의 출연자가 다른 참가작의 연출을 맡기도 하는 등 '질좋은 공연'과는 동떨어진 행태가 반복된다.

연극 향유 인구가 적은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 히트작 '이(爾)'와 '아트'도 광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비를 털어 전용극장을 만들었던 한 연극인은 2년만에 손을 들어야 했다.

연극인들은 전용극장 확보, 시립극단 창설, 중앙과의 인적 교류 등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이번 수상 소식에 "고놈들 장하고 예뻐 죽겠다. 이젠 어른들이 분발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한 연극인의 말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

관객이 없는 연극은 의미가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극 공연장을 찾는 건 어떨까. 마침 18일부터 광주문예회관 등에서는 평화연극제가 열린다. 광주 연극의 돌파구를 위해 연극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한 '산불' 등의 작품을 보며 애정어린 박수를 보내보자.

/mekim@kwangju.co.kr